

화평장로교회 조기원 목사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카라과 박성도 선교사님의 아들 박태진 선교사 가정이 처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올해로 24 번째 안식년 없이 사역하신 부모님께서 이번에 안식년을 가지시고, 동생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서 저희가 선교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로 나온 7살때 부터 자랐던 곳이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중간 중간에 몇 년씩 머무르곤 했던 곳이기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혼자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신학교와 교회의 큰 사역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니카라과 선교 사역을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곳 니카라과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학교 사역

라틴아메리카 선교센터 신학교의 올 해 목표는 실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적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아니라, 훌륭한 실력을 갖춘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체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많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워야 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높여서 더욱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낙오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공부 하는 것이 몸에 익지 않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책임감을 느껴서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 마나과 어린양교회

마나과 어린양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영육적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매 주 20 명이 넘는 새신자를 교회로 초대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신자를 초대 하는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한명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쉴 수 있는 공원이 흔한 것도 아니고, 여가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교회에서 흥겹게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후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분들이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 곳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가 시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